

# 자료관 안내

## 정보관에서는 평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서·잡지를 열람할 수 있고, AV부스에서는 전쟁체험자의 증언과 평화에 관한 비디오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검색코너에서는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수장품과 도서 문헌의 정보, 전시실에 대한 해설 정보, 평화 학습의 교재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라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증언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관(1층) ■전망대 ■평화기원홀(1층)  
2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전시실(1층) ■회의실(2층) ■퀴즈코너(1층)  
넓이255㎡에 전시케이스, 전시 패널을 구비하고 있어 사진전이나 회화전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형식으로 최대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여 오키나와에 관한 다양한 퀴즈를 풀 수 있습니다.

# 오키나와현 평화기원자료관 설립이념

1945년 3월 말, 역사상 보기 드문 격렬한 전쟁의 불꽃이 이 섬을 뒤덮었습니다. 90일간 계속된 철의 폭풍은 섬의 모습을 바꾸고, 대부분의 문화유산을 파괴하였으며, 20여만 명의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오키나와전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현민을 총동원한 지상전이며,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오키나와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민간인 전사자가 군인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으로 그 수는 10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포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 막다른 곳까지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기아와 말라리아로 쓰러진 사람, 패주하는 일본 군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키나와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전쟁의 부조리와 잔혹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전쟁의 체험이야말로 곧 전후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국 군사지배의 중압에 저항하면서 키워 온 오키나와의 마음의 근원입니다.

“오키나와의 마음”은 인간 존엄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인간성의 발로인 문화를 각별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영령의 명복을 빌고, 오키나와전의 역사적 교훈을 올바르게 다음 세대에 전하며, 전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호소함으로써, 이를 통해 영원한 평화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기에 현민 개개인의 전쟁 체험을 모아 오키나와현 평화기원자료관을 설립합니다.

1975년(2000년 4월 1일 일부 수정)

오키나와현



## 교통 안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은 2014년 4월 1일 기준

①나하(버스터미널) → 이토만 선(버스터미널 하차)

- 버스 노선 : 89번
- 요금 : 580엔 (편도)
- 운행 편수 : 20분에 1편

②환승 이토만 →교쿠센도 선(버스터미널) (평화기원당 입구 하차)

- 버스 노선 : 82번
- 요금 : 470엔 (편도)
- 운행 편수 : 1시간에 1편

■택시 이용 시

①나하→이토만 마부니 (평화기원공원)

- 거리 : 22km
- 요금 : 3,000~3,500엔 (편도)

## 견학 안내

■개관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단, 상설전시실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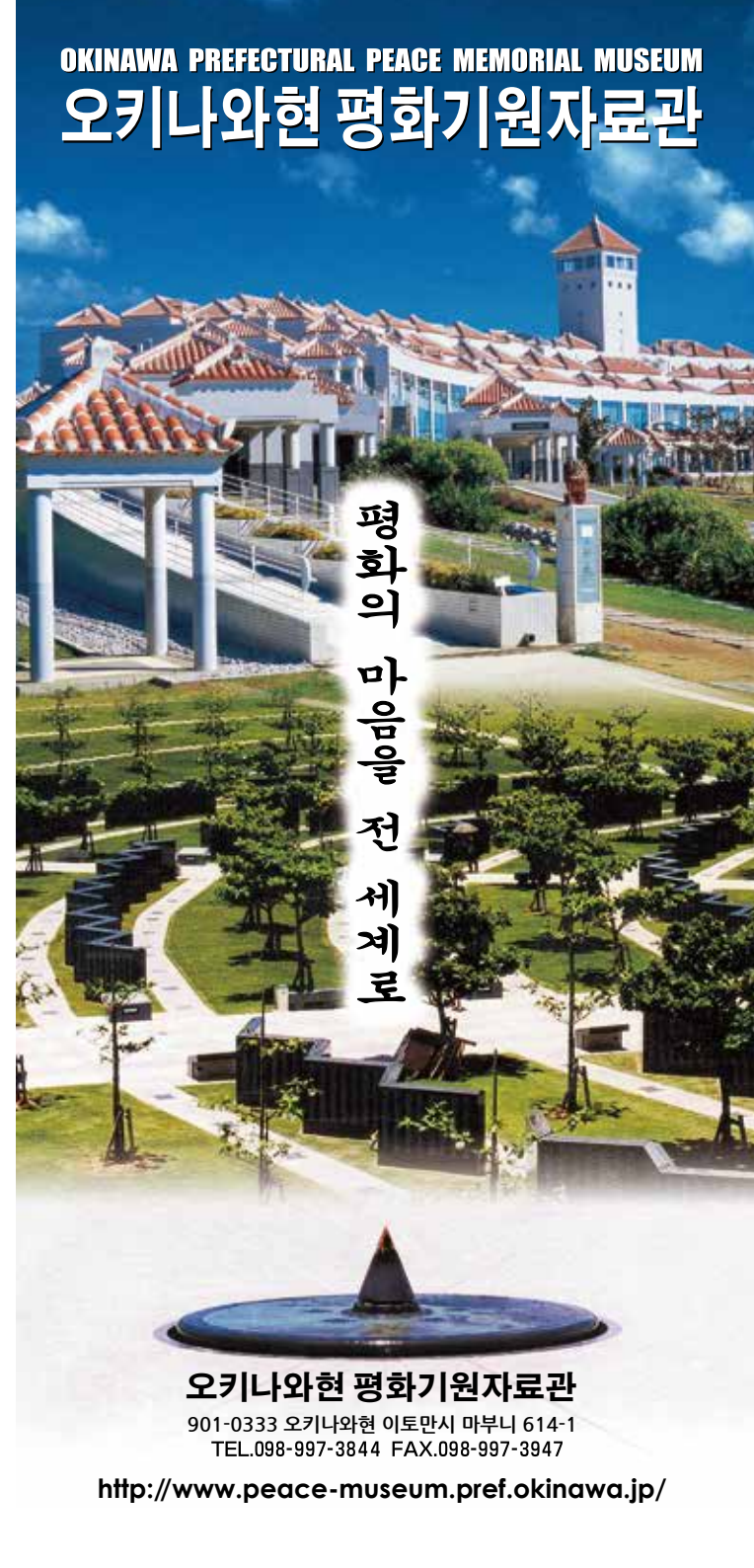
■휴 관 일 연말연시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관 람 료 (상설 전시)

구 분	개 인	단체(20명 이상)
대 인	300엔	240엔
소 인	150엔	100엔



- 1 남자 화장실
- 2 여자 화장실
- 3 수유실
- 4 장애인 화장실
- 5 양호실
- 6 엘리베이터
- 7 로커·자판기실



# OKINAWA PREFECTURAL PEACE MEMORIAL MUSEUM 오키나와현 평화기원자료관

평화의 마음을 세계로



오키나와현 평화기원자료관  
901-0333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부니 614-1  
TEL.098-997-3844 FAX.098-997-3947

<http://www.peace-museum.pref.okinawa.jp/>

# 미래를 전망하는 코너

## 1F (어린이 전시실)



어린이 전시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생명이야 말로 보물, 세계의 어린이들!]에서는 여러 나라 18명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생활, 친구, 놀이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 [지금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는 사라지지 않는 전쟁·분쟁, 집단괴롭힘에 의한 인권 문제, 지구 환경 파괴 등 세계적인 또는 가까이에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 등을 생각하게 하는 코너이다. [어린이 놀이마당]에서는 전시물을 만지면서 놀이를 통해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평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이다.



어린이 놀이마당



[지금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코너의 하나인 [사라지지 않는 빈곤]

세계는 하나! 18명의 어린이가 방문객을 웃는 얼굴로 맞이한다.

# 역사를 체험하는 코너

## 2F

### 프로로그

예로부터 평화를 갈벽히 사랑한 류큐의 선조들은 바다를 건너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역을 맺었다. 바다는 풍요로운 생명의 근원이며 평화와 우호의 가교로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 제1전시실 오키나와전으로 가는 길

### 오키나와전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의 역사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전시

메이지 정부는 류큐왕부에 대하여 무력으로 [류큐처분]을 단행했다. 그에 따라 오키나와현은 황민화 정책으로 급속히 일본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근대화를 서두르는 일본은 부국강병책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주변 국가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어 오키나와는 15년 전쟁의 최후의 결전장이 되었다.



류큐처분부터 오키나와전 직전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전시



오키나와에서 포로가 된 방위대원과 의용대원

## 제2전시실 주민이 본 오키나와전 철의 폭풍

### 오키나와전의 실상을 주민의 시점에서 그리다 피해 상황을 입체 지도와 영상, 실물 등으로 전시

오키나와전에서 미·일 양쪽 군대는 총력을 기울여 사투를 펼쳤다. 물량작전을 펼친 미군은 무차별적인 공습과 함포사격을 가해 엄청난 수의 포탄을 쏟아냈다. 이 [철의 폭풍]은 약 3개월 동안 이어져 오키나와의 모습을 크게 바꾸었으며, 군인과 주민 20여만 명의 사망자를 낼 만큼 처참했다.



참호 등에서 발견된 의료기구



대형 모니터에 비춰지는 오키나와전의 모습

## 제3전시실 주민이 본 오키나와전 지옥의 전쟁터

### 오키나와전에서 주민이 겪은 참극을 지하(동굴)와 지상(죽음의 방향)을 통해 상징적으로 전시

일본수비군은 슈리결전을 피해 남부로 철퇴, 지구전을 택했다. 그 후 미군의 철저한 소탕 작전으로 막다른 곳까지 몰렸고, 군인과 민간인이 뒤섞인 비참한 전쟁터가 되었다. 방공호 안에서는 일본군의 주민학살과 강제적인 집단사, 기아로, 밖에서는 미군의 박격포, 화염방사기 등에 의한 살육으로 그야말로 지옥의 아비규환이었다.



동굴 속으로 피난한 주민,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기의 입을 막는 어머니와 위협하는 일본군



오키나와전 당시 물이 들어 있던 물통

## 제4전시실 주민이 본 오키나와전 증언

### 오키나와전의 체험을 증언집과 증언 영상으로 전시

오키나와전의 실상을 전하는 물적자료는 매우 적다. 원통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전쟁터를 체험한 주민의 증언 밖에 없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에 마음을 담은 사람들의 무거운 입에서 후세에 전하고자 이어지는 증언들은 역사의 진실 바로 그 자체이다.



오키나와 각지, 소개지, 이민 간 나라에서 보내 온 전쟁체험의 증언을 모은 방. 증언 영상도 볼 수 있다.



증언 영상 부스



전쟁체험의 증언

## 제5전시실 태평양의 요지

### 전후 수용소 생활, 27년간의 미군 통치와 복귀운동, 평화창조를 추구하는 오키나와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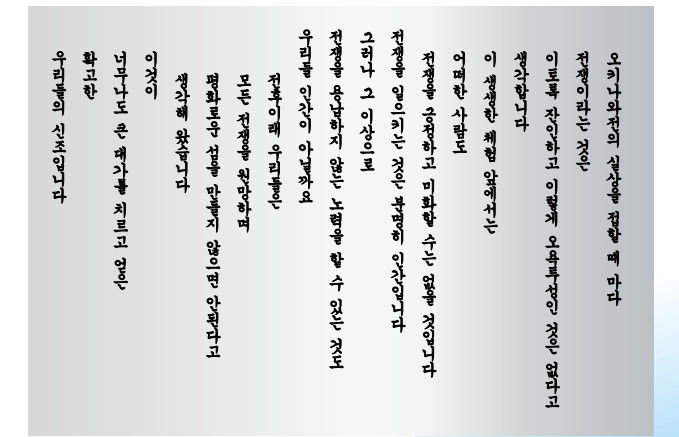
전후 오키나와는 수용소에서 시작됐다. 그 후 미·소를 축으로 한 냉전 체제 안에서 군사기지로 강화되는 오키나와. 토지를 빼앗기고, 슬한 억압을 받아 온 주민들의 분노는 섬 전체의 토지투쟁과 복귀운동으로 확대된다. 동서냉전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중의 비극. 오키나와의 교훈은 [평화의 요지]를 통하여 세계로 전해진다.



상점의 내부



1960년대 베트남전쟁 무렵의 기지촌. 미군의 허가를 받은 바(A라인 바)와 당시의 상점이 재현되어 있다.



전시를 마치며



태평양의 넓은 바다와 밀려오는 하얀 파도, 파랗게 펼쳐진 하늘, 아름다운 경관이 위안을 준다.